

## 한시 1수

(주 : 고힌가 동아일보 주필로서 1925년 6월 20일경 싡흥우·유억겸·서재필·김활란  
등과 함께 하와이에서 열린 범태평양 민족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선박편으로  
태평양을 가로지르면서 선상에서 얻은 한시)

南北東西不見洲 / 사방을 바라보아도 물은 안 보이는데

連天水色閑行舟 / 하늘과 맞닿은 물빛속에 뱃길만 한가롭구나

安將眼下太平洋 / 언제러나 눈아래 태평양 물로

滌盡人間萬古愁 / 만고에 쌓이고 쌓인 인간의 수심을 깨끗이 씻어 볼까